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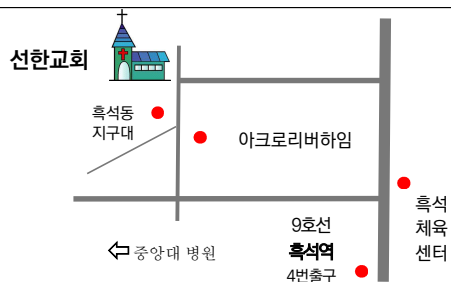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 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 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외선교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력교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 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سی용(동작 01, 10, 21)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1장 31절



담임목사 임 춘 배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1장
교 독 문	교독문 48 (시편 106편)
찬 양 과 경 배	449장 (통일찬송가 377장)
합 심 기 도	다함께
말 씬 봉 독	마태복음 21장 28~31절
설 교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 (마21:28-31)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오전 11:00
예 배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자기 행위에 대한 보은 (잠11:16-31)

교회소식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예배에도 복장과 자세를 단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1. 주일예배: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1시 예배 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는 말씀자료 제공 / 금요일기도회는 영상 제공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송구영신 및 신년 감사 예 배 안 내 1. 31일(목) 밤11시. 송구영신예배는 영상예배로 드립니다. 2. 가정별 기도 제목은 담임목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금요일기도회(1/1)는 가정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주일(1/3) 예배는 신년감사예배로 드립니다. 3. 제 직 회 다음주(3일) 주일 예배 후 제직회가 있습니다. 4. 개 인 경 건 훈 련 안 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2차): 6개월동안 일독하시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금주 범위: 예1장~겔31장]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5. 경건서적 독후감 시상 경건서적 읽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개인소감문: 김혜선, 류은영, 박미정, 박영근, 손정환, 윤국로, 조하은 - 부서활동: 여호수아 6. 교 회 학 교 진 급 자 유초등부: 윤진우 이예건 청소년부: 김서연 윤하슬 이정우 청년부: 손가은 7.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tr> <td data-bbox="1155 1422 1337 1556"> 한주간의 기도제목 </td><td data-bbox="1337 1422 2184 1556">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한해가 되기를 한해동안 부족하고 실패했던 점들을 아뢰며 그래서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하기를 승리하고 영광 돌렸던 일을 아뢰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를 </td></tr>	한주간의 기도제목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한해가 되기를 한해동안 부족하고 실패했던 점들을 아뢰며 그래서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하기를 승리하고 영광 돌렸던 일을 아뢰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를
한주간의 기도제목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한해가 되기를 한해동안 부족하고 실패했던 점들을 아뢰며 그래서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하기를 승리하고 영광 돌렸던 일을 아뢰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를		

가정예배	아무 흠도 찾을 수 없었다
찬송 :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통 202)	
본문 : 다니엘 6장 1~4절	
말씀 : 언젠가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져, 소금이 돼야 함에도 그 맛을 잃었고 빛이 돼야 함에도 밝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의 흠을 찾고자 했던 대적자들이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던 것과 같이(4절), 그리스도인들은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흠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본문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탁월한 분이십니다.(고전 2:10)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했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가 뛰어나고 아무 흠이 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모든 것을 통달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서 아무 흠도 찾을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4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모습과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요즘 시대는 ‘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일상을 공개하지만 하나같이 행복한 척, 열심히 척하며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과 같이 모든 일에 충성스럽게 행하는 자가 되어, 대적들이 흠을 찾으려 할 때 아무 흠도 찾을 수 없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이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지 못하자 대적들이 기껏 꼬투리를 잡은 것은 기도하는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세 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대적자들은 이를 빌미로 왕을 부추겨 30일간 왕 이외의 대상에게 기도하면 사자 굴에 던져 죽인다는 법령을 만듭니다.(7~8절) 그런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10절)	
그는 ‘30일만 예배를 쉬면 되는데’라고 생각하며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었음에도, 여전히 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 놓고 보란 듯, 아니 ‘나를 당장 잡아가라’고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서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성령 충만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이었기에 수많은 대적이 그에게서 아무런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다니엘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흠도 찾을 수 없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 (마21:28-31)
서론	2020년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본론	1.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 의미 (1)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질문과 태도에 대한 답변(23-27절) (2) 포도원 주인과 두 아들: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맏아들은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않음(28-30절) (3) 예수님의 질문: ‘이들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31절) (4) 예수님의 해답: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31절) (5) 의미: ①아버지:하나님/ 포도원:하나님의 일/ 두아들: 두 종류의 사람(태도) ②좋은 대답과 모순된 행동 ③성급한 거부과 늦지 않은 회개 2. 교훈 (1)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2) 나는 두 아들 중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3) 주님께서 내게 명령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Q.T.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날짜 : 12월 28일
찬양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본문	베드로후서 2:1-11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을 주실 때에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교회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단의 방해로 인하여 거짓 복음이 기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행실에서 호색하는 것을 좇아 진리의 도를 꺾방하는 것이 특색임을 밝힌 베드로는 그들에 대한 멸망 심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노아 시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판받은 것을 예증으로 들며,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의 모든 계획이 악하여 세상에 죄악을 관영케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참조, 창6:5-7).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홍수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셨지만 그중의 의인인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들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동시에 사랑으로 의인을 구원하시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 심판은 노아 때의 홍수 심판과 같이 그 범위가 크지는 아니했지만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곳에 있던 사람들만 멸망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땅도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로 인한 심판이 자연 만물에 까지 미치는 것으로, 인간 죄악의 심각성과 그 영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는 인간의 죄악은, 다른 모든 호흡하는 동물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물 속에 잠길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에 의인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고 경건한 자를 불경건한 자들과 함께 취급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의인에 대한 보호책을 세우신 후에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묵상질문	내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신앙
찬양과 기도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새 176)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끓는 물속의 개구리(boiling frog) 실험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닿으면 깜짝 놀라서 뛰어 나오겠지만 시간을 충분하게 두고 조금씩 열을 가하면 개구리는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있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실험을 하는 이유는 개구리가 변온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변온동물은 환경에 따라 자신의 체온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개구리 실험은 ‘치사온도’를 인지하고 못하고 뜨거운 물에서 탈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후에 사실과 다르다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서서히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에 무관심하지 말고 민감해야 한다는 교훈의 예화로 자주 쓰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영적 둔감함으로부터 오는 죄는 우리에게 소외와 단절을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죄의 자리를 즉시 벗어날 수 있지만, 철저히 거부하지 않으면 점차 물들게 됩니다. 죄는 영적 분열과 정신적 분열을 가져오고 결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죄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옴을 알고, 주위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대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나누기	베드로후서 3:1~9	
묵상포인트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재림의 때는 알 수 없으나, 그때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성도는 재림에 관한 약속을 확신하고,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말세에 나타나는 조롱하는 자들, 곧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주장은 무엇인가요?(3~5절)	
적용하기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소망하며 사나요? 재림의 소망이 커지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함께 기도하기	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느끼고, 말씀을 근거로 시대의 변화를 읽으며 기도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회개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생명의 말씀	날짜 : 1월 1일
찬양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본문	요한일서 1:1-10		
	사도 요한은 본서의 초두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부터 계셨음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부터 함께 계셨던 분으로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셔서 세상의 창조에 모두 관여하시어, 그리스도 없이 창조된 피조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자백하여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심으로 구속의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하여 명백히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장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불신하는 자들은 그 속에 말씀이 있지 않은 것, 즉 구원받지 못한 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하는 자들은 곧 구원의 필요성을 인정치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묵상질문	나는 지난 한해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났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형벌을 받을 자들	날짜 : 12월 29일
찬양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본문	베드로후서 2:12-22		
	불의한 자들은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구속 역사를 주관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믿지 않고 오히려 비웃으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대해 두려움이 없이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자들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방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워함이 없이 담대하게 범죄하며 고집하여 떨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방하는 자들을 특별히 형벌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난 자가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의 더러운 것에 얽매게 되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곱 마귀의 비유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한 귀신이 있다가 나갔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으므로 일곱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다시 타락하게 되면 그 전보다 더욱 더러워지게 됨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배도자들에 대한 묘사에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는 속담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속담을 인용한 것은 더러운 죄악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 씻음을 받아 깨끗해진 자들이 다시 세상의 더러운 것 속에 들어가서 죄악 속에 빠지게 됨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러운 곳으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자신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소용없음을 밝히며 궁극적으로 사단의 종임을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처음부터 죄악 속에 그냥 있었던 자들보다 더욱 사악한 자들입니다.		
묵상질문	내가 받았던 별중에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였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이단자들에 대한 경계	날짜 : 12월 30일
찬양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본문	베드로후서 3:1-9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성도들에게 둘째 편지를 쓰는 목적을 언급하였는데,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단들로 인하여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 실족하는 것을 염려하며 그들로 진리에 굳게 서서 악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야 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있는 자는 이단의 미혹을 받아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은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부정하여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며 진리의 말씀을 기롱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았던 일을 잊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과거의 홍수 심판을 일부러 잊음으로 그때의 사람들처럼 육체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마음대로 담대하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에 그 말씀을 믿지 않아 심판을 받은 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후에 다시 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할 심판은 불로써 임하게 될 것임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그 때에는 말씀으로 세상을 불살라 악인들을 태워 제거하실 것입니다. 불로써 태울 때 불순물이 타서 없어지고 순수한 정금이 나오듯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정화되어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백성만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질문	예수님의 재림을 나는 얼마나 믿고 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주의 날을 소망하여야 할 성도	날짜 : 12월 31일
찬양	찬송가 239장 저 멀리 뵈는 본향 집		
본문	베드로후서 3:10-18		
	베드로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고 말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은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영원한 존재이시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이 칼아 있는 동안에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지지 않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실망하여 재림 신앙에 회의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자들에게 믿음을 견고히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재림을 빨리 하시지 않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재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형제 바울도 자신과 같은 말씀을 기록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때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대로 기록했으므로 사사로이 억지로 말씀을 해석하여 스스로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권면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계주의 재림을 고대했으나 성도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틈을 타서 예수의 재림 자체를 부인하는 이단 사설이 횡행했고, 현대에 와서는 예수 재림 날짜를 예언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단 사설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어 자기들의 주장을 변호하는 증거로 전락시켜 버린 대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리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미혹에 이끌려 굳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권하였습니다.		
묵상질문	나는 심판의 날이 언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오늘의 기도			